

라일락 향기가 있는 오월

박일순 (멜라니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내가 Hospice로 활동한지도 어언 10년이 지났다.

장 유착 수술을 받았고, 아픔이 많았던 시기에 나는 하느님께 기도 했었다. 어느 날 꿈에서 88도로를 달리다가 성모병원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내려 황토길을 걸어갔다. 성모병원 자리에 집 한 채가 있어 들어가 보니 사다리가 놓여 있길래 그걸 타고 하염없이 올라가다가 꿈에서 깨었다.

그 뒤, 호스피스 교육이 있다는 주보를 보고 교육을 받았고,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환자들을 대하며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던 일, 환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던 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환자 실의 환자가 갑자기 피를 벌컥벌컥 토했던 일 등등... 그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분, 또 순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분들의 눈물을 보며 힘들고 어려울 땐 나를 인도하시는 하느님께 기도 드린다. 모두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던지 아니면 한 두 번 만났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 드리며 기도를 하고 임종경을 바치고 하느님 품으로 편히 보내 드리하고자 노력하는 작은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두해전에 하느님 곁으로 떠나 보냈지만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한 분을 떠올로 본다.

높은 직위에 공무원이었던 분. 간암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나 갑자기 닥친 병마에 본인도 수궁이 안

된채 몸은 수척해 젖고 황달이 온몸을 덮었다.

괴로움과 원망과 분노로 외부인을 거부했고, 방문하면 항상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러던 그분이 한 날은 의자를 옆에 놓고 조용히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놀라와하시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자기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며 지금 쓰러지고 싶지 않다. 나는 성실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며 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그 뒤 찾아가면 많이 기다렸다 하시며 예전과는 달리 우리들을 반기어주셨고, 어떤 날은 울무치를 꼭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하며 어린아이처럼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으며 하느님께서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소백산을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만남을 가질 때 마다 하루가 다르게 환자는 물기마른 나무처럼 앙상해졌고, 치자빛으로 온몸과 눈이 노랗게 되었다.

11월달의 마지막 날. 갈잎처럼 푸석한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이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했다. 그 다음날 환자는 이 세상을 떠났다.

입관식에 함께 한 나는 한없이 쉬지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편안히 주님의 품으로 가시라고 기도를 드렸다.

지금도 먼 하늘을 쳐다보며 "형제님! 울무차?" 하

며 그분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수화기를 들으니 작년에 하느님결으로 떠난 유가족이다. 너무나 반가웠고 가끔씩 기도중에 기억하고 있는 환자였다. 유방암으로 53세에 가신 분.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모습도 비슷해서일까? ... 처녀일 때는 빨간 구두를 신고 푹 푹 걸으셨다는 분. 인상도 좋으셨고, 신앙도 깊었으며 항상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봉사하는 우리를 부러워하신 분이다. 유방에서 뇌로 전이되었고 눈은 뜨고 있으나 사람 몰라 보았고 나중에는 대변 조절이 안 되어 떡가래처럼 하얗게 나왔었다. 운명을 집에서 맞이하겠다고 과천집으로 가셨고 짝궁인 자원봉사자 실비아씨와 함께 방문 갔을 때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베베의 성가 소리가 방안에 가득했다. 환자는 다문 입 사이로 빼죽이 나온 씩은 피와 고름을 한 입 물고선 거즈로 살짝 덮고 있었다. 우리는 거즈와 핀셋, 가그린을 준비하게 하고 죽은 듯이 누워있는 환자에게 "안녕하세요, 반포 봉사자 왔어요. 실비아도 함께 왔어요. 이 아름다운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하죠? 지금부터 입안을 닦아 드릴테니 협조해 주세요."라고 했다. 아~하라고 하니 입이 조금 벌어졌고, 우리는 가글링을 촉촉이 적셔 십 여 차례 오물을 닦아 내었고 손마디만한 딱정도 몇 개 끄집어 내었다. 또, 내 볼을 그의 입에 대어보기도 했다. 후끈한 열이 전해져 왔다. 비록 죽음을 기다리며 거즈로 덮어놓은 상태였지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을까. 무슨 의사 표시인지 "억.. 억.." 하는 소리를 내었고 우리는 성모님의 노래 239장과 151장을 불렀다. 그 다음날 자매는 이 세상을 떠나갔다. 주택인 그분의 집엔 온갖 봄꽃들이 화려하게 꽃밭을 이루고 있었고 향긋한 라일락 향기가 내 마음을 더욱 슬프게 했다. 나는 긴 골목길을 걸으며 그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되길 기도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하며 또, 내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 고뇌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걸었다.

대부분 우리가 현재의 안락한 생활에 젖어 죽은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아주 멀리 있는 일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한 순간 영혼 떠난 육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와 판단력으로 좋은 일을 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하며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맑고 푸른 코발트색의 하늘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속삭인다. 그리고 빈 허공의 하늘에 기도한다.

이 세상을 떠난, 내가 보고싶고 그리워하는 영혼들 나를 스쳐간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라고...

